

KOSDAQ Connect 2025 (2025.07) FAQs

Q1. 2Q25 및 2025년 예상 라인업

- A1. - 2분기에는 상각비 부담 존재하나, 오리지널 납품 확대 등 통해 편성 공백 영향 최소화 예정
- 2025년은 연간 라인업 중 60% 이상이 하반기에 집중될 예정
 - 수목 라인업 재개, 일본 프로젝트 확대, 오리지널 공급 등을 통해 연초 제시한 25편+ 계획 유효
 - 김은숙 작가 등 S/A급 크리에이터·배우 참여작 중심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대

Q2. 제작 효율화 전략

- A3. - 제작비 DB 기반 가이드라인 마련, 입찰 프로세스 도입, 실비 정산 확대 등 통해 제작비 절감 중
- '24년 8개 작품 → '25년 대부분 작품으로 확대 및 '26년 전체 라인업 적용하여 수익성 개선 목표

Q3. 일본 등 글로벌 작품 진행 현황

- A3. - 6월, Amazon Prime Video 통한 <내 남편과 결혼해줘> 일본 리메이크를 시작으로,
- 하반기 TBS <하츠코이 도그즈>, Netflix Japan 오리지널 <소울 메이트> 등 순차 공개 예정
 - 검증된 K-드라마 제작 시스템을 바탕으로 일본 내 파트너십 확대 지속할 것
 - 미국은 자회사 및 Skydance 등의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20편+ 공동 기획개발 중

Q4. Skydance 지분 인수 배경 및 기대 시너지

- A4. -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, 제작 협업을 넘어 Skydance-Paramount 합병 법인을 통한 미국 내 유통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 기대
- 하 글로벌 파트너십 구조 재정비
 - Skydance와의 협업을 통해 Apple TV+ 오리지널 <The Big Door Prize> 시즌 1·2 공동제작 성공
→ 지분 확대로 기획개발 시너지 극대화, 현지 제작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제작사로의 도약 가속화
 - 미드 평균 제작비는 핸드 대비 3~5배 수준으로 포텐셜 高 →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여 목표

Q5. 중국 사업 재개 기대감

- A5. -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, 현지 플랫폼 등과 커뮤니케이션 지속
- 중국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
 - 한한령 해제 시, ① 미방영 구작의 잔여 매출 인식, ② 보유 구작 판매, ③ 신작 동시방영,
④ 현지 직접 제작 등 추가 수익성 확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

Q6. 수목 중심 신인 배우 발굴 등 사업 진행 현황

- A6. - 하반기 <우주를 줄게>를 시작으로 수목 드라마 재개, 신인 배우 발굴 사업 본격화
- 배우 출연료 상승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, 차세대 배우 육성 병행할 것
 - CJ ENM과 협업해 시너지 기반의 커머스 등 IP 부가 사업 연계 예정

Q7. 숏폼 등 신사업 방향

- A7. - 프리미엄 스토리텔러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숏폼 영역 진출을 신중히 검토 중
- 국내 숏폼은 현재까지 수익성 제한적이나, 티빙 및 CJ ENM 등과 협업 가능성 열어둔 상태
 - AI 등 신규 수익원 발굴도 병행 중이며, 구체적 내용은 단계별로 공유 예정

Q8. 중장기 타겟 영업이익률

- A8. - 미디어 산업 전반의 부진과 일부 콘텐츠의 흥행 성과 악화로 수익성 하락 경험
- 그럼에도 <눈물의 여왕>, <내 남편과 결혼해줘> 등 화제성 높았던 작품은 高 수익률 기록
 - Hit-ratio 개선, 해외 판매 확대, 제작 효율화 등 통해 중단기 영업이익률 10% 수준 회복 목표
 - 장기적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통해 장기적으로 20% 내외 이익률 지향

Q9. 주주환원정책

- A9. - FCF, 영업이익률, CAPEX 등 주요 지표 타겟 달성 시 주주환원 정책 검토 예정
- 현재 FCF와 CAPEX는 안정적이나, 미디어 업황 부진으로 영업이익률 타겟 미달
 - '25년 펀더멘탈 재구축과 신사업 성과 확보를 통해 주주환원 기반 마련에 집중할 것